

제15회 미주문학상 수상작 시부문

배미순

종이컵에 쓴 시 외 4편

창살 안쪽으로
 목마른 햇살 여럿이 달려들어
 야끔야끔 제 치경을 넓히는 여름 아침
 차구의 아쪽 '스타벅스'에서
 블루베리스콘 하나를 뜯어먹는다.
 한 치 앞의 팬타임 그 누가 알랴.
 먹고 먹히는 세상에 길들여진 나도
 이곳까지 흘러와
 너 하나를 야끔야끔 삼킬 뿐.
 나이들면서 조금씩은 더 쓸쓸해지는
 한쪽 하늘만 무심하다.



경북 대구 출생. 연세대 국문과 졸업. 1968년 연세춘추 문학상 수상. 197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 제1회 시카고 국미 예술상 수상. 1993~94년 미전국 시도서관 편집자상 수상. 2006년 해외문학상 대상 수상. 시카고 문화단체 "여자마을" 창립/문학 주간. 현재 중앙일보 문화전문 기자. 시집 『우리가 날아가는 날』 외 다수.

중국엔 누구나 가는 외길인데도
 왕도를 몰라 갈팡질팡하며
 헤매고 헤매다 여/까지 와 버렸나?
 생의 한 자락 받아들듯 조심스레
 커피를 마시다 만난
 미국시인 제이 맥클너나가
 '멋진 삶은 언제나 길의 중간에 있다'고
 뜨거운 종이컵으로 알려준다.
 야망과 동정, 열정과 비판 사이
 한 잔의 커피와 와인 사이에
 내가 찾는 바로 그 길이 있다고...

집으로 가는 길

당신은 이는가
 집으로 가는 길을.
 일상의 틀을 깨며 살기 위해
 우리는 멀고 낯선 곳에서 집을 풀었다
 당신은 그쪽
 나는 이쪽
 밧줄처럼 팽팽히 붙들고 있는 사이
 아래로 더 아래로
 재빨리 뿌리 내리는 법 알지 못해
 수많은 마치의 날들을 탕진했다
 따뜻한 불빛 하나 내어 걸지 못했다
 쓸쓸히 돌아오던 차진 발자국 소리
 아득한 시간들 속수무책 흘러가도
 붙잡지 못했다 붙잡을 수 없었다
 갈림길은 밤낮 없이 튀어나왔지만
 아무도 미중 나오는 이 없었다
 어디로 가야할지 예측할 수 없어
 밤마다 무한천공 날다보면
 살기왔던 것들 다라는 잊혀지고
 다라는 영영 등을 돌려가도 했었다
 정신은 때로 아득해졌지만

□ 특집 / 제15회 □주문학상 □

눈 먼 내 사랑 내어던지며 울 수는 없었다
당신은 이는가. 저 언덕 아래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저물 무렵

드디어

나무의 속살에까지 다다른 해거름
연못마저 노을물로 물그락 불그락
작은 새 몇이 와서 끝까지 서성이며
무슨 흥정을 처리도 하는 걸까

하루씩의 떨림.

하루치의 슬픔에도 너무 박차
마지막 남은 금쪽 같은 이슬로
뱅뱅 머리 굴리는 꽃들 앞에서
누군가 잊히고 싶어 안달. 안달하는
나무 벤치가 여태 부럽다.
밤. 칠혹 같은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저물 무렵이면 알 수 있을까?
글썩이는 눈물처럼
초저녁 별들이 좌르르 쏟아져 내리는
그때에야 알 수 있을까?
진종일 참았던 울음 마음
놓고 평평 물 수도 없는 그 때에야?

어머니, 아 어머니

어머니,

오랫동안 당신은 무엇 기다렸나요?

천지에 오방색 꽃 피어나는

봄동산, 아니면 갖 태어난 작은 새들

종종가리는 봄들판이었나요?

마뚝한 자식들 떠도는 동안

봄 같은 날들 잔정 왔나요?

꿈인지생시인지 모를 만큼 행복한

그런 날들, 그런 세상 맛보았나요?

겨울 달마저 차갑게 종루를 때리듯

잠박속아 사시던 쓰러린 이 땅에서

봄햇살 같은 생애 기다렸나요?

어머니, 아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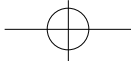
오방색 봄 찾으러 길 떠난 어머니

그곳에서는 어떤 세상 보고 계세요?

한 해도 잊지 않고 때 맞추어 피고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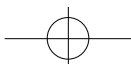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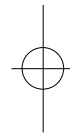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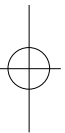
우리 집 앞 분분한 목련꽃만

여태도 목을 빼고 보고 계신지요?



□ 특집 / 제15회 □주문학상 □

꽃 살결, 호드러지는 이 봄날에.....



누가 먼 발치에

누가 먼 발치에
 슬픔의 웅덩이 하나 숨겨 놓았을까
 해마다 정물여 꽃을 심으면서도
 마음이 시린 남의 나라, 남의 땅.
 쓰러질 듯 쓰러지지 않으려
 살얼음판처럼 살아오는 동안
 날 기다리는 건
 화려한 꽃밭인 줄 알았다
 나의 시간, 나의 때인 줄 알았다.
 목까지 차오르는 고통의 늪
 그 배반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에도
 날 기다리는 건
 화려한 오방색 꽃밭인 줄만 알았다.
 누가 먼 발치에
 슬픔의 웅덩이 하나 숨겨 놓았을까
 아아, 험사리 건너지 못할
 그 시퍼런 질곡의 웅덩이 하나

수상 소감

“시를 향한 소명의 등불 밝히며……”

한글은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요,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그 한글 사랑, 시 사랑으로 인해 먼저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세 분 심사위원님(고원, 마중기, 신파, 송상옥, 소설가)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시는 참으로 오랜 내 친구였습니다. 아주 내성적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는 늘 말없이 내 곁을 지켜주었지만 나는 여러 번 배반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봄부터 청동거울 출판사에서 제34집 『보이지 않는 하늘도 하늘이다』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마주 문학상’을 한번 탄다면 가을여행을 꼭 LA로 와 말리브 해변가의 낭만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망은 점점 더 나무처럼 무성해져 나를 한동안 들뜨게 했습니다.

시인은 견자(見者)여야 하고 미궁을 향해 나아가는 자여야 하고, 세상만사의 비밀을 푸는 자여야 하는데 시를 써서 상받을 생각을 하더냐…… 그건, 순수한 시심을 때묻히고 보독하는 일 같기도 했지만 막무가내로 나는 그 일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입니까? 9월이다 지나가도록 종무소식이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그걸 차마 꿈꾸고 하나님께 보차례 까지 했지만, 부끄럽게도 이번이 아니라면, 나는 다시 봄나비처럼 비상하는 노력을 시작해야겠구나…… 했습니다. 한 마리의 나비가 아무런 고통 없이 삽시간에 하늘을 훨훨 날른다면, 잠시잠깐 날

갯짓을 하다 떨어질 뿐, 고공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자력이 도무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별례 시절부터의 꿈틀거림과 비상을 향한 안으로의 연습과 내공이 그래서 더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 있습니다. 이제 단념합니다.했었습니다. 그런 뒤 3, 4일 후에 야뽕박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단념한 뒤끝이어서 내 속에선 감사와 환희가 더 오랫동안 들끓었습니다. 시를 향한 내 오랜 소명에 누군가 가등불 하나 더 밝혀주는 듯 싶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한부 생을 살고 있습니다. 전율하는 감성이나 사심도 언제까지나 내 것처럼 싱싱하게 살아있지 않을 것마기에 마흔 남아 있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 옆에는 얼마전 '시카고 마라톤'에서 26.2마일을 완주한 남편이 있어 언제나 나를 채근합니다. 내 시에 좀처럼 만족하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라는 일은 마라톤너민의 몫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시인도 목표를 향해 성심껏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달려가는 길의 전후 좌우에 자친 새끼새들 있다면 이들도 함께 푸른 창공을 날게 해줘야겠습니다. 앞으로 삼라만상의 아름다움 밝히며, 감춰진 비밀을 캐는 일에 더 많은 갈망과 친화력을 키우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이런 행사를 마련해주신 마주 문협 김동찬회장님과 모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리며 수상 소감에 대신합니다.

심사평

① 시부문 - 고원(시인, 마주문학 고문)

풍성하게 좋은 열매

마주문학 담당부서에서 넘어온 심사 대상이 시인 11명의 작품이었다. 그 중에서 한 명을 뽑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심사위원 두 사람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대단히 수월했다.

나는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배마순 씨를 택했다. 첫째, 이 시인은 거의 40년 전에 서울에서 정식으로 등단한 이래 꾸준히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속해 온 경력을 높이 평가하고 싶었다. 둘째로 작품 중심으로 볼 때, 최근에 출판된 시집에서 처자가 추린 시 10편이다 고르게 현대 감각을 바탕으로 관찰과 사색과 상상의 세계를 수준 높은 영상(visual) 예술에 의해 '표현'한 예술성이 뚜렷하게 돋보였다. 또 한 가지는 이 시인의 문학적 미래가 든든해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다.

마주 동포문학의 큰 수확을 기대하면서 축하를 드린다.

② 시부문- 마중기(시인)

배바순 시인은 1970년대의 서울 중앙일보 신춘문에 출신으로, 거의 40년의 긴 세월 동안 시쓰기의 외롭고 소산한 길을 힘없이 걸어온 시인입니다. 특히 30년 이상 '재미시인'으로 살아오면서 한국 문학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미중서부, 시카고 지역의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의 시는 한 마디로 생활시의 전형으로, 비쁜 이만생활의 애환을 곡진한 시적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의 시는 쉽고 즐겁게 읽히지만, 읽고 나면 한동안은 그 시의 간절한 잔정성 때문에 사랑과 신뢰의 파장을 오래 가슴에 간직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세속화된 현대시의 형식적 언어에 삭상한 우리들이 의당히 느끼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외로운 길을 고집하고 자신의 길을 의연하게 가고 있는 배시인의 용기에도 주목해야 할 때라고 느껴집니다.

보도를 구르는 낙엽 한 장의 보편적 현실을 성찰의 언어와 생활에서 솟구친 예술혼으로 시적 승화를 노리는 끊임없는 도전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③ 소설·수필 부문—송상욱(소설가, 미주문협 고문)

상은 어떤 분야에서 남다른 활동에 대한 하나의 보상으로, 수상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값진 것이다. 이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널리 인정받은 결과이며, 그 단계에서 그가 이룩한 크고 의미 있는 성취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미주문학상은 전 미주를 대표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임이 여러 면에서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시행자나 수상자 모두 이 점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을라 믿는다.

규정에 따라 해당 기간에 발표된 작품들을 심사 대상으로 삼지만, 신인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 쌓아온 창작 활동 경력도 참작된다. 그런데 올해는 시 부문 외의 다른 부문에서는 수상자를 내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소설과 수필 부문에서 여러 작품이 후보로 오르긴 했으나, 그 어느 것도 수상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미주문학상의 수상권에 들려면 무엇보다도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야 한다. 독창성이나 주제의 깊이라든가, 작품을 다루는 작가의 기량 등 필수적인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완성도가 그만큼 낮아지는데, 후보작들 모두 그에 미흡했음을 자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이들 부문 작가들의 분발을 바라며, 내년을 기대해 보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래기로 한다.

미주문학상 역대 수상자

1회	1989년	마종기(시)	9회	1997년	김선현(시)
2회	1990년	김용팔(시), 이송자(시)	10회	2000년	정용진(시)
3회	1991년	김용익(소설)	11회	2001년	김호길(시)
4회	1992년	황갑주(시)	12회	2003년	문인귀(시)
5회	1993년	고 원(시)	13회	2004년	김정기(시)
6회	1994년	박남수(시)	14회	2006년	한혜영(시), 김혜형(소설)
7회	1995년	송상옥(소설)	15회	2007년	배미순(시)
8회	1996년	최태웅(소설)	미상 17명 (시 13명, 소설 4명)		



제15회 미주문학상 시상식에서